

教授의 本分과 犧牲精神

李 崇 寧
(百濟文化開發研究院 院長)

I

나는 해방되기 전에 平壤師範學校의 교사로 12년간이나 근무하고 있었다. 본시 대학에 남아서 공부를 계속하려던 것이 主任教授의 지시에 따라 平壤으로 내려 온 것인데, 地方 교사는 술을 잘 마시고 공부에 게으르다는 評이 돌 때라서 나는 平壤으로 내려가지 않으려고 애썼지만, 主任教授가 화를 냈다.

“요새 취직자리가 하늘의 별 따기야. 내려가라면 내려가는 것이야.”

라는 강력한 지시로 平壤으로 내쫓기다시피 내려간 것이다.

내려가 보니 상상하던 것 같이 자칫하면 물이 들어 공부를 읽기가 쉬워서 나는 집을 먹고서 외톨이 돌림망이가 되어 가지고 공부에만 열심했다. 서울에 震檀學會가 창립되자 先輩와 同輩들이 나를 編輯委員에 넣어 놓고 勇氣를 북돋고, 때로 論文을 요구한 것이다. 나는 자주 서울에 올라가서 새 情報도 얻고 새 책을 사 가지고 와서 공부한 것이다. 그러다가 1944년 겨울 先輩들에게서 密令이 내려왔다.

“곧 獨立이 될 것이다. 大學設立도 계획되고 있으니 貴君의 活躍을 바란다. 부디 自重自愛해서 꼭 참고 기다리고 서울로 올라올 생각마라.” 그래서 나는 家族과 책을 미리 서울로 올려 보내고서 貨房에서 解放을 기다렸었다. 解放이

되자 나는 곧 8월 18일 서울로 올라왔다. 國語科 敎科課 評찬위원으로 熱을 올리다가 집이 없어 거리의 放浪者 같이 살다가 官舍를 주겠다는 조건으로 10월 초 京城大學 豫科의 교수를 맡고, 다시 11월 15일 白樂驥 박사가 부르기에 나가 보니 京城大學 法文學部의 助教授가 되라는 要情이다. 그래서 응락을 한 것이다. 解放뒤 그 敎科課 評찬을 맡게 되어 밖에서 소란이 지속되어도 교과서를 만든다고 정말 정신없이 지내온 터이다.

II

나는 京城大學의 國語學 강의를 맡게 될 때에 概說도 두 시간 강의였지만 무척게 준비했었다. 나는 國語는 言語의 一種이니 言語學에 속하므로 言語學의 연구가 없이는 학문으로 성립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이 생각은 옳았다고 믿는다. 평양살이로 言語學의 최근 文獻을 잘 보지 못한 것을 回復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대학 도서관의 책을 뒤져 무척게 공부한 것이다. 그리고 국어학이니 ‘한글’만 하면 된다는 학생들의 생각을 根本的으로 뒤집어 놓았다.

그래서 개설이든 특수강의든 나의 배경 이론으로 西歐學者의 주장을 소화시키며 나가기 위해 노우트의 술어는 英·獨·佛語에다가 때로 라틴, 회랍어까지 넣어 語源을 쫓 때도 있었다. 처음 내 강의에 들어와서는 한동안 정신없이 따

라오다가 한 말을 지내고 나서야 깨닫고 알게 되었다고들 한다. 나는 여기서 느꼈다. 교수는 학생과 지식에서 현격한 거리를 가져야 권위가 유지되는 것으로 믿게 되었다. 그것은 연습이나 외서 강독에서 잘 나타나는 것이다. 만일 ‘先生님의 지식은 바닥이 엇보인다’라든지, ‘先生님은 공부하지 않고 옛 노트를 그대로 가지고 나오는 것이야’가 입끝에 오르내리게 되던, 그 교수의 권위는 땅에 떨어지는 것이다. 이런 뜻에서 大學 教授란 어려운 職業이라고 생각한다. 공부는 계속되고 研究業績이 연이어 발표되고 그 강의에서 그간의 놀라운 연구가 빈번하면 학생들은 다시 없이 존경하고 숭복하는 것이다.

나는 요새 大學에서 교수에게 학생과의 對話를 강요하는 태도가 理解되지 않는다. 내가 학생들을 만나면 으레 다음과 같은 對話가 있었다.

“요새 공부 많이 하지?”

“무슨 책을 읽고 있나?”

“某氏의 論文 읽었나?”

“읽었으면 所見을 말해 보아!”

“이 책 좀 읽어 보게. 파리에서 새 學說이라고 해서 이름난 책이야.”

그리고서 生活問題에 들어가

“집안의 여러 분들 다 아무 일 없으시지?”

“학비 관계는 어떤가?”

그래서 나는 우리 집 房에 學生을 無料로 한 명씩 두었다. 내 아내가 젊은 학생이 찾아 오면

“이 방에서 博士가 넷이 나왔어요.”

라고 자랑한다. 나와 학생의 對話란 限度가 있는 것이다.

外國의 大學에 가 보면 교수 만나기가 참 어렵다. 만나려면 먼저 女秘書에게 만나려는 事由를 전한다. 그러면 用務와 그 외의 일을 묻는다. 그리고 교수에게 電話로 연락한다. 그러면 교수가 水曜日 오후 9시에서 10분까지 面談하자고 응낙이 나온다. 그리고 나서 그 날 용건만 말하고 그 見解를 듣고 나온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교수가 학생과 對話를 해서 學生指導를 하라고 하는 指示는 좋다. 그런데 政治問題를 가지고 대화할 수는 없다. 여기 植物學의 權威者인 교수가 어떻게 학생과 정치 문제를 들고 대화를 하라는 것인지 모를 일이다.

植物學에 권위 있는 교수일지라도 정치문제에는 거의 無識할 것이 아닌가. 자기 비학의 어려운 사정을 冷情하게 批判할 수는 있지만, 專攻 외의 문제점을 들고 학생을 지도하라는 것은 教授들의 苦惱를 더 무겁게 하는 것이다. 교수가 學問的으로 學界의 權威者라면 그 學問하는 태도로 학생을 감화시키면 될 것이고, 그 이상의 것을 要求해서는 아니 된다.

가까운 日本의 이야기인데 東京大學의 言語學科의 服部四郎 교수의 研究室에 학생이 노트를 가지고 들어가지 않으면 그 교수는 화를 내어 학생을 호령해서 내쫓는다고 한다.

“내가 바쁜 研究生活에서 무슨 틈이 있다고 나와 閑談을 해? 나가! 정신없는 학생 같으니.”

이것이 곧 教授의 學問에서 넘쳐 흘러나오는 威嚴이고, 效果 100%의 訓育方法이 될 것이다.

教授는 돈에吝嗇해서도 아니 된다. 물론 술을 지나치게 마시고 연구에 지장을 가져 오는 것은 나쁘지만 학생의 生計나 學費 조달이 어려워지면 父兄 대신 돈을 내어 줄 수 있는 태도라도 가지고 있을 만하다.

한번은 釜山 피난에서 서울로 復讐하고 있더니, 편지가 한 장 들어왔다. 보니 學生의 편지다.

“...先生님 저는 學校를 그만두겠어요. 釜山이던 學費가 겨우 되지만, 서울은 食費 등을 집에서 빌 가망이 없으니 이만 退學하겠읍니다...” 나는 곧 답장했다.

“監飯이나마 우리 집에 와서 있어라. 食費는 물론 無料다.”

그 뒤 그 학생을 장가들이고 취직시키고 해서 지금 당당한 某大學 教授가 되었다. 正月이던 전 食口가 세배를 하러 달려온다.

“할아버지께 절해라.”

이런 식으로 흐뭇한 學族이 늘어만 간다. 그래서 아내가,

“A교수, B교수, C교수, D교수 모두 이 房에서 공부하고 學位를 딴 분들이다.”

라고 자랑한다.

나는 해방 뒤 강의를 할 때에는 무섭게 준비를 했다. 두 시간 講義면 대략 3시간 이상 준비를 한다. 군소리나 弄 없이 준엄한 태도로 강의

물 해 나간 것이다. 淸涼里 官舎에서 강의를 준비하다가 밥을 세울 때도 있다. 새벽 城 안쪽에서 敎會 종소리가 울려 오면 “아이구! 날이 밝는구나.” 하고 자리에 눕기도 했다. 나는 지금 그 순간의 場面이 가장 흐뭇해 보이고 吉福스러워 보인다. 지금도 袈裟 一部에는 1951년도 「××學 講義 노트」가 죽 꿇혀 있어 때로 찌르고 感慨無量해 보기도 한다.

敎授에게 雜音이 뱀돌아서는 아니 된다고 본다. 몇진 戀愛로 新聞의 話題가 되어도 대학에서 辭職을 강요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그것이 아무런 영향도 없이 지나가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학생들에게 어느 나쁜 영향을 주는 것이다. 훌륭한 敎授는 공부에 情熱을 쏟는 것이지 外道하라는 말이 아니다. 나는 이 점에서도 노력해 왔으니 아무런 혐도 없진 하다.

또 政府에서 長官이란 감투를 가지고 초빙하면 대개 그 감투란 미끼를 물고 정부로 나간다. 나는 대학에서 정부로 나가는 것은 좋다고 보고 아무런 허물할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 그 어려운 行政을 맡으려고 나간 當部者인 교수에게 나는 도리어 칭찬과 존경을 아끼지 않는다. 나라의 일을 위하여 長官으로 나가는 것 정말 고맙고 좋은 行動이다. 그러나 그 장관이 갈려 나오게 되면 다시 대학으로 돌아온다. 나는 이것을 마땅치 않게 생각한다. 왜냐하면 학문 연구에는 중단이 없다. 중단해도 그다지 탈이 없는 학문이라면 대체로 그 정도를 알 수 있다. 대학 敎授가 나라일을 위해서 하던 공부를 버리고 政府로 나가는 것은 정말 가혹한 일이고 높이 評價할 일이다. 그러나 그가 長官 자리를 물려섰다고 해서 다시 대학으로 돌아온다면 그의 學問은 볼 것 다 본 셈이다. 中斷해도 관계치 않고 또 계속할 수 있다면 그 學問은 바닥이 뻘히 들여다 보이는 것이다.

나는 여기서 日本의 京都大學의 교수 이야기를 하련다. 그는 1週日 出講을 거절한다고 한다. 그 理由는

“내가 出講을 나가기 전 1週日 마음이 설레고 그 준비로 공부가 손해를 본다. 出講을 갔다 온 뒤로 마음이 제 자리에 가라앉고 공부 가 軌道에 오르려면 또 一週日 걸린다. 그런

데 都合 三週日間 損을 보는데 一週日 出講에서 무엇을 얻는 다고 나가겠느냐?”

이 이야기에는 無理가 있지만 研究의 中斷이 있을 수 없다는 原則을 지키려는 태도가 나타나 있다. 우리 교수들은 長官 자리의 교섭이라면 다들 나갈 것으로 보고 그 長官에서 물러서게 되면 또 모두 대학으로 돌아온다는 것은 아무리 好意로 생각해도 이해가 가지 않는다. 대학 교수는 研究가 天職이고 研究에는 中斷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을 學風으로 세워야 한다.

나도 그런 經驗이 있었다. 4·19 뒤에 張勉씨와는 친한 터로 나에게 이탈리아 大使로 가 달라고 3일간 사람을 보내어 조른 일이 있다. 나는 拒絕했다. 내 아들이 그때 高校生이라서

“아버지, 3년만 다니오세요. 저 알프스 좀 올라가 보게요.”

나는 화를 낸 것이다.

“교수는 교수적으로 만족해야 해. 내게는 공부가 天職이다. 쓸데없는 생각말라.”

그리고 필리핀 臺灣을 돌아 12월에 歸國하니 그 자리가 張勉씨의 아우인 張勃씨에게로 內定되었다고 해서 나는 안심한 것이다.

나도 李大統領 때 철자법 간소화 문제로 政府의 交涉을 받아 보았지만 言下에 거절하였다. 그러나 一切 밖으로 소문을 퍼뜨리진 않았다.

나는 도저히 아래의 水準에 未達하는 자이지만 교수는 弟子인 학생에게 모범이 될 人格·學問·行動의 示範者가 되어야 한다. 이런 문제를 一貫하여 풀을 수 있는 核心點은 ‘교수는 誠實한 學者이어야 된다’로 要約될 것이다.

III

나는 지금 생각해 보아도 좋은 敎授를 만났고 그의 훈련으로 내 학문이 커진 것이다. 그 교수는 言語學의 小林英夫 조교수이었다. 내가 오한의 위치에 서게 된 것도 나이 젊은 이 小林교수의 덕이라고 믿는다. 이것은 교수의 熱心이 그대로 弟子에게 영향을 끼친다는 좋은 예로서 여기 소개하려고 한다. 내가 京城帝國大學 1學年生 때에 言語學概說의 강의를 듣고 있을 때였다. 小林교수는 日本의 東京大學의 言語學科 출신으

로 秀才로 이름난 분이다. 卒業論文은 노르웨이語의 입센의 文法論을 佛語로 쓴 實力者다. 그리고 졸업한지 6개월만에 Fr. de Saussure의 Cours de Linguistique Générale을 「言語學原論」으로 번역하여 學界를 놀라게 한 자로 이 책의 parole, langue, langage라는 術語의 번역과 Saussure 言語學의 體系를 알고 한 번역이라서 日本의 기성 言語學者가 놀란 것이다. 그는 나 이도 나보다 그리 많지도 않았다. 하루는 나와 對話가 있었다.

“자네가 朝鮮語學을 專攻한다지?”

“네.”

“그려면 語學은 몇이나 하나?”

“英語와 獨語입니다.”

“佛語는?”

“못합니다.”

이 말을 들던 그는 얼굴이 神經質的으로 야릇하게 되더니 넋다 쏘아 붙었다.

“자네 대학에서 英·獨·佛語가 공부인 줄 아나? 外國의 知識을 빨리 습취하려는 수단밖에 안 되어. 자네가 朝鮮語學을 專攻한다면佛語를 모른다는 것은 말이 아니 되어. 佛語를 못한다면, 아예 지금 다른 科로 轉科하는 것이 좋아.”

난 이런 충격적인 말을 들은 일이 없었다. 아마도 세과랑게 질렸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여기서 분격한 것이다. 그날부터 「佛語四週問」을 사서 떼고, 佛文學의 譯註書을 서너 권 해내고서, 곧 Vendryes의 Le Langage란 400面的 책으로 들어붙었다. 發音符號는 알고 있어 겨우 읽고 解釋을 주로 한 것이다. 그때는 나는 꼭 미친 사람 같았다고 한다. 변소 벽에는 aller(가다) venir(오다) 등의 動詞活用表를 꿰고 일을 보았으며 방에는 벽과 천정에도 單語나 熟語가 붙곤 했다. 그래서 반년만에 佛語 論文을 읽게 된 것이다. 시힘잡아 佛人講師의 시간에 들어가 보니 敎材는 장난같이 쉬운데 發音符號로 자잘한 까닭에 들어도 알 수가 없었다. 一例로 “아베 메 아미”가 도미체 생각이 나질 않는다. 뒤에 알고 보니 “avec mes amis(친구와 함께)”를 알 수 없었던 것이다. 이것도 나는 “아버크 머스 아미”로 읽었던 것이기 때문이다.

小林교수는 내 이 태도를 보고 “그쯤하면 무엇이 성공할 것 같다”고 믿었는지 그 뒤 자기 研究室이나 집으로 불러 놓고 새 論文이나 原稿를 읽히고 討論을 전개했다. 지금도 생각한다. 獨語의 ‘歷史的’이란 말에 geschichtlich 또는 historisch가 있다. 하나는 ‘歷史的’이고 또 하나는 ‘史的(進化的인 史的)’으로 갈리는 것에서 激論한 일도 있다. 나는 이제 가지고 學問하는 인간이 된 것이다. 一學年 끝의 「言語學概論」의 考查에서 試驗教室에 들어서니 小林교수는 날 보더니, “자네는 이 試驗 그만두어. 뒤에 내 방으로 와.” 내가 그의 研究室에 들어서니 책상머리에 책이 열 권쯤 쌓여 있는 것이 보였다. 내가 들어서자 그는,

“이 책 내가 사서 자네에게 寄贈하는 것이야. 그 대신 이 책은 獨逸方言에 관한 책이야. 이 책에서 독일 방언의 ‘××點’을 研究해서 論文으로 써 와요…….”

나는 좋기는 했지만 짐이 무거운 것을 알았다. 그래서 3월 봄放學에다가 4,5월에 걸쳐 겨우 써서 바치니 “이것도 論文이야”로 퇴짜가 되었고, 또 울리던 퇴짜, 그래서 세번째에 가서 “그만하면 좋아.”로 받아들인 것이다. 나는 정말 좋은 敎授를 만나 個人指導로 成人이 된 것이다. 小林敎授의 젊음을 학생 한 사람을 잡아 人物을 만드는데 쓰겠다는 丙心에 내가 걸린 것이다. 나는 그의 회담어 講義에 끼어 끝에 가서 플라톤의 파이돈(饗宴)까지 나갔다. 言語學을 위해서는 여러 言語를 알아야 言語理論들에 통할 수 있다는 것이다. 나는 露語, 中國語에도 힘썼다. 그리고 卒業論文은 당시의 英·獨·佛의 原書에서 理論을 이끌어 내어 쓴 것이라서 成績은 물론 ‘優’이었다.

나는 여기서 느낀다. 敎授는 學生指導에서는 自己犧牲的이어야 하고, 熱意를 다해야 한다고 믿는다. 교수는 일반 職業人이나 월급쟁이가 아니다. 그것은 學問의 聖徒로서 研究의 化身이 되고, 그 한마디의 말이 學生의 心琴을 울려야 한다고 믿는다. 나는 다행히도 小林英夫란 젊은 교수를 만나 精力投入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이 오늘 反省資料가 된 것이다. 자기 자랑 같이 된 점 讀者 여러분의 용서를 빈다. *